



광남일보



주간 제 8108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음력 5월 4일)

김대중 통합리더십 시험대...전남 편중에 '시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

조직 구성·인사 배분 불균형에 광주 교원·일반직 반발 통합 이전 임용자 승진 기회·생활권 보호 보장 요구도 “흡수 아닌 대등한 결합 촉구”...인수위 오늘 입장 발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초대 수장으로 선출된 김대중 교육감 당선인이 통합 리더십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조직 구성과 인사 배분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교원·일반직 반발까지 이어지면서 통합교육청 출범 과정이 당선인의 첫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전남·광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통합교육청 조직개편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개편안은 기획조정실도 신설하고 정책국·교육국·행정국·미래교육국·학교교육국·교육행정국 등 13실6국 체제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1부교육감이 전남에 배치되고, 조직 핵심 기능인 기획조정실도 제1부교육감 산하에 편제되면서 사실상 전남이 중심(추경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 명칭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전남교육청의 정책국·교육국·행정국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 반면 광주교육청 조직은 미래교육국·학교교육국·교육행정국으로 변경됐다. 세부 조직 역시 전남은 총무과·예산과 등 기존 명칭을 유지하지만 광주는 운영관리과·예산복지과

등으로 바뀌면서 상징성 측면의 불균형을 넘어 조만간 흡수 또는 폐지될 조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통합은 흡수가 아닌 대등한 결합이어야 한다”며 균형 있는 조직 운영을 촉구했다.

인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통합교육청 출범으로 신설되는 부이사관급과 서기관급 보직 상당수가 전남에 배정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광주교육청 내부에서는 승진 직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원단체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통합 과정에서 교사 의견을 반영할 공식 창구 마련을 요구한 데 이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현장 교사가 포함되지 않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역시 인수위가 교육 현장보다 선거 관계자 중심으로 꾸려졌다고 비판했다.

최근 인수위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두고도 전교조 광주지부는 행정업무 경감과 교권 보호 관련 문항이 빠져있으며 현장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들의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원근무지 보장과 승진체계 분리, 인사위원회 분리 운영 등을 최종 조례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특히 통합 이전 임용자의 승진 기회와 생활권 보호를 위해 근무지역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 승진임용을 종전 관할구역별로 운영하고 인사위원회도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 동의 없는 관할구역 간 정보 금지와 종전 근무지 복귀 보장 등을 촉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률 검토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우리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교육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가봐도 동등한 통합이 아닌 흡수통합으로 임하는 대목이 많아 안타깝다. 당초 통합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지금의 방식은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조직개편과 인사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출범 직전까지 이어지면서 김 당선인의 통합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김대중 당선인의 교육감직 인수기구인 'K-교육특별시준비위원회'는 18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직개편과 인사 운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7일 5국 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산업현장 점검 일환으로 광주 AI 산업융합집적단지 방문, 홍보관에서 관계자로부터 시데이터센터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전남광주 AI 도약,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해달라”

민형배 당선인, 산업융합집적단지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만나 시데이터센터·자율주행 시설 점검...기업·전문가와 간담회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17일 광주 AI 산업융합집적단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전남광주 AI 산업 도약을 위해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 당선인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오희동 AI 산업융합집적단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현장 방문 일정에 참석해 AI데이터센터와 실증·창업 인프라를 둘러보고, 기업인·전문가들과 첨단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남광주의 주력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AI,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민 당선인은 “구윤철 부총리가 국정으로 매우 바쁜 시기에 지역의 미래 산업 현장을 찾아주셨다”며 “AI 심장부, AI 메

카, AI 글로벌센터라는 말씀과 함께 5국3특 선도모델로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 불가 대한민국 건설의 출발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에는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 당선인은 그러면서 “그동안 광주는 AI 인프라를 깔기 위해 애써왔고, 인재 양성, 창업 지원,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며 “AI데이터센터, 실증·창업동,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같은 기반 시설들이 청년 기업인과 혁신 기업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 당선인은 또 구 부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PICK & BACK’ 기초를 거론하며 “정부가 전남광주를 미래 먹거리

로 픽(PICK)했다면, 백업(BACKUP)도 확실히 해주셔야 한다”며 “전남광주는 압도적 성장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앞선 모두발언에서 “민형배 통합시장 당선인이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 광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AI 메카로 도약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는 AI, 자율주행, 데이터센터, 반도체를 포함하는 지방 중심의 글로벌 센터로 발전할 수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넘어 지역 발전을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 당선인과 구 부총리,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은 AI데이터센터 현황을 보고받고 핵심 인프라인 서버실을 둘러봤다.

이어 비 오는 야간 도로 상황을 가정한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직접 체험했다. ▶2면서 계속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도전

교육부, 3분기 발표...AI·에너지 특화 강점 유력 후보군

교육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첫 지원 대학 선정 절차에 착수하면서 전남대학교가 최대 1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 유치에 나선다.

교육부는 17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 계획’을 확정하고 3분기 중 지원 대상 대학 3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 대학에는 학교당 최대 10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지원되며, 브랜드 대학 육성사업과 인공지능(AI) 거점대학 구축 등이 추진된다.

평가 대상은 전남대를 비롯해 강원대, 경상국립대,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전국 9개 거점국립대다. 이중 3개 대학만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광주·전남에서는 전남대가 유일하게 경쟁에 참여한다.

전남대는 그동안 AI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해 왔다. 특히 광주 AI 집적단지과 나주혁신도시에 나지벨리,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규모나 연구 실적뿐 아니라 지역 성장 전략과의 연계성을 중점 평가할 방침이다.

또 대학 특성과 분야가 지역 성장동력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지방정부와 산업계의 참여 의지가 충분한지, 기업 투자와 인프라 구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는지 등도 평가 대상이다.

전남대는 국가 전략산업인 AI와 에너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 회원모집 안내

구분	분양금액	구좌	회원 특 전
VVIP (A형)	700	6좌	- 정회원 1인 : 그린피연체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정회원 동반9인(그린피50% 할인, 연20회그린피연체 (1일·1회 사용))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연체 (1일·1회 사용) 동반9인 그린피 70%할인 (1일·1회 사용) 비회원 2인 : 그린피 연체 (1일·1회 사용) 동반9인 그린피 70%할인 (1일·1회 사용) (단, 그린피 연체는 정회원, 지정회원, 비회원 중 1일·1회만 사용가능) -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연체 (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일·1회 사용) - 무기명카드 1회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120회 사용/월 10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VVIP (B형)			- 회원 없음 - 무기명카드 1회 발급 : 그린피 70% 할인 (연 60회/월 5회 소멸성, 1일·1회1일4인 기준)
VIP 정회원	500	9좌	- 정회원 1인 : 그린피연체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정회원 동반9인(그린피50% 할인, 연20회그린피연체 (1일·1회 사용)) -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연체 (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일·1회 사용) - 무기명카드 1회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120회 사용/월 10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하트 정회원	320	5좌	- 정회원 1인 : 그린피 연체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 지정회원 1인 : 그린피 연체 (1일·1회 사용) - 무기명카드 1회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72회 사용/월 6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해피 정회원	180→160 (할인 20)	5좌	- 정회원 1인 : 그린피 연체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 무기명카드 1회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36회 사용/월 3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회원권 문의 전화 ☎061)330-5004

· 2026년 연단체모집

- 신청조건 1부 2팀, 2부 3팀 이상 · 레스토랑 중 · 석식 이용시 우선 배정
- 모집코스 격월(회, 대) 또는 대중제 선택
- 접수기간 2025.10.14.(화) ~ 모집 종료시 까지
- 할인혜택 월별 그린피 추가 할인 혜택
총무, 회장 2인 고정 할인 그린피 제공(3팀 이상 진행시)
레이디, 시니어 추가 할인
7,8월 연단체 진행시 특별 할인 혜택
연말 우수 연단체 선별하여 멤버 전원 혜택 제공
- 접수방법 연부킹 신청서 작성
(신청서 : 해피니스CC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자료실)
· 이메일 접수 : syoon1@happinssc.co.kr

· 골프호텔 객실



- 2인실 -

- VIP 4인실 -

- 별채 -

- 별채 -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대표전화 061) 330-5000

예약전화 061) 330-5001~4